

대동 세상을 향한 '글'의 외침

오월, 문화로 피어나다

<2> 오월문학제

광주전남작가회의의 13~14일
전일빌딩 245·민주묘지서 개최
문학상 시상·사적지 탐방 등 다채

"오늘 우리는 오월 영령 앞에 참담하고 부끄럽다. 국민은 끝내 안전하지 못했고, 국가의 자존심은 무너졌으며, 한반도 주변의 위기는 날로 고조되고 있다."

광주전남작가회의(회장 정양주)가 오는 13-14일 오월문학제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작가선언문 '국민이 주인이다'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오월항쟁 43주기를 맞아 전국의 문학인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오월문학제가 열린다. 올해 주제는 '오월의 정의, 문학의 실천'.

오는 13-14일 전일빌딩245,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개최되는 이번 오월문학제는 심포지엄, 5·18 문학상 시상식, 5·18사적지 탐방, 5·18민주묘지 참배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진다.

정양주 회장은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5월, 80년 5월 문학인들은 참 자유와 대동의 세상을 위해 펜과 맨몸으로 분연히 일어섰다"며 "오늘의 오월문학제는 당시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 새롭게 많은 이들과 함께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먼저 첫 번째 행사는 13일 오후 2시 전일빌딩 245 9층 다목적강당에서 열리는 심포지엄. 이 자리에서는 유희석 전남대 교수가 '국가폭력과 문학'에 대한 기초 발제를, 허상일 동대 교수와 이소 조선대 교수가 각각 '국가폭력과 여성 주체의 목소리', '증언의 재현을 위하여'를 주제로 발제를 한다.

발제 이후에는 문학평론가 김주선(조선대), 김



지난해 열린 오월문학제 장면.

<광주전남작가회의의 제90>

영삼(전남대)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 올해 선정된 5·18문학상 시상식이 개최된다. 신인상에 서나루(시), 윤대정(소설), 이아람(아동문학)에 대한 시상에 이어 5·18문학상 본상인 김형수 작가의 '김남주 평전', 정지아 작가의 '아버지의 해방일지'에 대한 시상이 예정돼 있다.

본상 심사위원회는 '김남주 평전'은 "시인 김남주의 생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광주 지역 정신의 위대한 계승이며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김남주의 생애를 밀도 있게 그려냈다"는 점에서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아버지의 생애를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시선으로 포착해 냈으므로, 5·18정신의 근원적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었다"면서 각각 선정이유를 밝힌 바 있다.

시상식 이후에는 소프라노 박성경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오후 5시부터는 본격적인 오월문학제 행사들이 진행된다.

정양주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준태·조진태 고

문의 환영사, 윤정모 한국작가회의 이사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타 지역 작가회의 회장들인 홍일선 경기작가회의 회장, 김창균 강원작가회의 회장이 연대사를 발표한다.

다음으로 이봉환(광주전남작가회의), 조정(고양작가회의), 함진원(광주전남작가회의), 정소솔(울산작가회의)의 시낭송이 무대에 올려진다.

이후 우물 안 개구리와 국악장작그림 그루의 공연이 펼쳐지고, 이대훈(광주전남작가회의), 김진숙(제주작가회의), 박복영(전북작가회의), 류경(광주전남작가회의)의 시낭송이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상황에 대한 한국작가회의의 입장을 담은 오월문학제 작가선언이 있을 예정이다.

이튿날인 14일에는 금남로와 ACC 등 5·18사적지 탐방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가 예정돼 있다. 5·18민주묘지 입구와 민주열사 묘역에는 한국작가회의 회원들의 걸개시와 200여점이 31일까지 전시중에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제14회 광주비엔날레(4월7-7월9일)에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박서보 예술상'이 사실상 1회 시상을 끝으로 막을 내릴 전망이다. 박서보 예술상은 '광주비엔날레 눈(Noon) 예술상' 이후 첫 선을 보인 시상제라는 점에서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카드'였다. 지난 2010년 시행한 '광주비엔날레 눈 예술상'(중진작가 1만달러, 신진 5000달러)은 2016년 예산부족으로 6년 만에 중단됐다.

이런 이유로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지난해 박서보 개인 출연금으로 설립한 기금재단으로부터 총 100만 달러(약 13억원)를 기부받아 그의 이름을 딴 '박서보 예술상'을 제정했다.

이후 '박서보 예술상'을 두고 불거진 일련의 논란을 '착잡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비엔날레 재단이 '박서보 예술상'을 공표한 지 1년 여 만에, 그것도 축제의 장이어야 할 개막식에서 피켓시위가 펼쳐지고 SNS상에서 폐지를 촉구하는 글이 릴레이처럼 퍼지는 모습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재단이 지난해 '박서보 예술상' 신설을 발표할 때는 조용한 것이 왜 '뒤늦게' 축제에 찬물을 끼얹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재단이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다. 지난해 3월 기금재단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후 기금자의 이름을 내건 미술상을 제정하면서 비엔날레 이사회 이외에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박서보 예술상' 논란을 보며

하지만 지난달 6일 광주비엔날레 개막식에서 일부 미술인들이 비엔날레 정체성과 박서보 화백의 과거 이력을 제기하면서 1년 여 만에 폐지될 위기를 맞았다.

이날 1회 수상자로 선정된 엄정순 작가에게 상금 10만달러가 명기된 패널리판과 꽃다발은 시상하자 그 자리에 있었던 일부 미술인들이 '박서보 예술상을 폐지하라'는 피켓을 앞세우며 시위 퍼포먼스를 벌인 것이다.

이번 박서보 예술상 논란의 중심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비엔날레 정체성'이다. '단색화의 거장'인 박서보(91)화백의 기부금이라는 명분으로 작가의 이름을 내건 상이 5월항쟁의 아픔이 깃든 광주에서 탄생한 비엔날레와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국제적인 미술상에 특정작가의 이름을 내건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전위예술가로 활동했던 박 화백의 이력을 감안하면 현대미술축제인 비엔날레와 관련이 있다는 반론도 있다.

이유야 어쨌든, 지역 문화계와 시민들은 개막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기금재단으로부터 기금의사를 받았을 때 예술상의 명칭과 적합성 등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어쨌든 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문제는 기부금의 향방이다. 기금재단이 후원금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내건 예술상 명칭이 변경될 경우에도 매회 10만 달러를 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만약 박서보 화백 측이 비엔날레 재단의 '새로운'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박서보 예술상'은 물론 시상금도 없던 일이 될 수 있어서다.

흔히, '세상에 조건없는 기부는 없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이번 박서보 예술상이 기부에 대한 상식을 깬지 지켜볼 일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의 권위다. 상금이 상의 명예와 품격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닐 것이다. 누구나 인정하는 수상자를 뽑는 것이 곧 상의 권위를 지켜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후한 상금이 없어도 세계 최고의 명성을 뽐내는 베니스비엔날레 황금사자상처럼. 〈문화·여행국장, 선임기자〉

제 68회 호남예술제 입상자

관악 입상자

<심사위원>
김연주(전.초대대 교수)
김동수(성신여대 교수)
이철용(연세대 교수)
이현주(군산대 교수)
김은경(수원대 출강)

◇ 호른 초등부 5.6학년

▲ 동상

1 이재연(살레시오초6)

◇ 트럼본 초등부 5.6학년

▲ 동상

1 오성후(살레시오초6)

◇ 클라리넷 초등부 3.4학년

▲ 동상

1 전호진(광주송원초3)

◇ 클라리넷 초등부 5.6학년

▲ 은상

5 문예준(전주한들초5)

◇ 플루트 초등부 1.2학년

▲ 은상

1 황라은(광주송원초2)

▲ 동상

3 황예인(광주송원초2)

◇ 플루트 초등부 3.4학년

▲ 은상

5 문아정(광주교대광주부설초4)

▲ 동상

1 나하운(광주송원초3)

3 조윤지(만호초3)

6 임도준(살레시오초3)

7 조민채(광주교대광주부설초4)

◇ 플루트 초등부 5.6학년

▲ 금상

3 황서현(광주교대광주부설초5)

8 우이든(광주교대광주부설초6)

▲ 은상

1 김류현(광주효덕초5)

▲ 동상

2 박가인(광주송원초6)

7 이예은(살레시오초6)

◇ 색소폰 중등부 3학년

▲ 동상

1 최미소(월계중3)

◇ 호른 중등부 3학년

▲ 은상

1 강현(양산중3)

◇ 플루트 중등부 1.2학년

▲ 금상

1 김연주(살레시오여자중1)

▲ 동상

2 전서현(광주송원중1)

5 조현아(전주양현중2)

◇ 트럼펫 고등부 3학년

▲ 동상

1 이다은(광주예술고3)

◇ 플루트 고등부 1.2학년

▲ 은상

1 김류현(광주효덕초5)

6 송민주(광주예술고1)

▲ 은상

3 조은파(전남예술고1)

8 손지호(풍암고2)

▲ 동상

2 아하진(조선대여자고2)

10 서해솔(한국창의예술고2)

◇ 플루트 고등부 3학년

▲ 최고상

2 김혜원(살레시오여자고3)

▲ 은상

1 서주안(광주예술고3)

3 김민지(광주예술고3)

▲ 동상

5 이민선(광주예술고3)

▲ 동상

5 이민선(광주예술고3)

▲ 동상

5 이민선(광주예술고3)

▲ 동상

5 이민선(광주예술고3)

▲ 동상

5 이민선(광주예술고3)

▲ 동상

5 이민선(광주예술고3)

▲ 동상

5 이민선(광주예술고3)

▲ 동상

5 이민선(광주예술고3)

▲ 동상

5 이민선(광주예술고3)

▲ 동상

5 이민선(광주예술고3)

▲ 동상

5 이민선(광주예술고3)

▲ 동상

5 이민선(광주예술고3)

▲ 동상

5 이민선(광주예술고3)

▲ 동상

5 이민선(광주예술고3)

▲ 동상

5 이민선(광주예술고3)

▲ 동상

5 이민선(광주예술고3)

▲ 동상

5 이민선(광주예술고3)

▲ 동상

5 이민선(광주예술고3)

▲ 동상

5 이민선(광주예술고3)

▲ 동상

5 이민선(광주예술고3)

▲ 동상

5 이민선(광주예술고3)

▲ 동상

5 이민선(광주예술고3)

▲ 동상

5 이민선(광주예술고3)

▲ 동상

5 이민선(광주예술고3)

▲ 동상

5 이민선(광주예술고3)

▲ 동상

5 이민선(광주예술고3)

▲ 동상

영산강 일대 물 설화 읽고 체험하고

영산강 이야기전 6월 4일까지

K-water 영산강보관리단(박종덕)·KWECO 영산강문화관(김창호)이 열고 있는 어린이 체험형 전시 '영산강 이야기전' (6월4일까지)이 눈길을 끈다.

'영산강 이야기전'은 영산강 일대의 물과 관련된 설화를 모아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읽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영산강 일대에는 물과 관련된 설화가 많이 있다. 영산강 발원지인 담양의 용소에서부터 목포에 이르기까지 풍요와 다산을 소재로 한 수많은 설화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작품 5편을 선정

했다. ▲영산강의 시원, 가마골 용소 ▲경양방죽 개미의 보은 ▲여의주 삼근 잉어 ▲아랑사와 아비사의 양암바위 ▲몽탄강과 왕건이다.

이번 기획전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만화 형식의 컬러링 체험 전시로 선보인다. 이외에도 ▲컬러링 체험 ▲도서존 ▲설화 애니메이션 상영 ▲용의 비늘에 희망 쓰기 등 다채로운 상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영산강 일대에는 유독 '용' 관련 설화가 많은데, 영산강 물길을 품은 용은 전시장 바닥에 대형 '용'으로 형상화 되어 방문객들이 용의 비늘 하나하나에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볼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